

# 2시간 내 신종 마약·약물복용 여부 분석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장성 나노산단 신청사 개소  
DNA 분석 등 41개 실험실  
최첨단 감정장비 대폭 확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2일 장성 나노산업단지(장성군 남면 삼태리 850-3)에서 신청사 개소식을 한다. 연구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9월 완공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수사연구소)가 2일 장성군 나노산업 단지에 새롭게 문을 연다.  
기존 국과수 광주수사연구소는 1997년 장성군 남면에 개소한 이래 연간 3만5000건의 감정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실험공간도 협소한 데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수사연구소는 총사업비 183억원을 들여 부지 면적 1만1533㎡, 건물 면적 658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본관동과 법의학동, 이공학동으로 구성됐다.  
수사연구소는 광주, 전남·북 3개 시·도의 4개 지방경찰청(광주, 전남, 전북, 서해해경)이 포함된 총 41개 경찰서와 해경, 군 부대 등을 담당한다.

연구소에는 법의학, 유전학 등 과학 및 의학 분야 출신 연구 인력 30여명이 배치돼 근무한다. 수사연구소는 연평균 3만 5000여건에 달하는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4만건 등 해마다 증가세다.  
새롭게 조성된 수사연구소에는 부검실과 유전자(DNA) 분석실, 약·독물 분석실, 교통화재 분석실 등 41개의 실험실이 들어섰으며, 복잡 다양한 범죄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첨단 감정

장비도 대폭 확충됐다.  
특히 신청사 이전에 맞춰 16억원을 들여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질량분석기)도 구입했다. 이 장비는 기존보다 신속하게 2시간 만에 신종마약류의 분석은 물론 약물복용 여부도 검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8400만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장비도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각종 사고·사건 현장에서 직접 가스 성분과 농도 등을 신속·정확하게 감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신청사 건립으로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신속·정확한 감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신청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법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개청식은 2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으며, 심보균 행안부 차관과 최영식 국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4  
해질녘 17:37

달출몰 16:40  
달지름 04:18

아침 쌀쌀·한낮 포근

대체로 구름 많고 안개 끼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7/20  | 보성  | 구름많음 | 2/18  |
| 목포 | 구름많음 | 8/18  | 순천  | 구름많음 | 3/19  |
| 여수 | 구름많음 | 10/19 | 영광  | 구름많음 | 5/19  |
| 나주 | 구름많음 | 3/19  | 진도  | 구름많음 | 5/17  |
| 완도 | 구름많음 | 10/19 | 전주  | 구름많음 | 10/19 |
| 구례 | 구름많음 | 4/19  | 군산  | 구름많음 | 10/18 |
| 강진 | 구름많음 | 5/20  | 남원  | 구름많음 | 6/18  |
| 해남 | 구름많음 | 3/20  | 축산도 | 구름많음 | 11/18 |
| 장성 | 구름많음 | 5/18  |     |      |       |

◇바다 날씨

|              | 오전           | 오후           |
|--------------|--------------|--------------|
| 서해 앞바다       | 남서~서 0.5     | 남서~서 0.5     |
| 남해 앞바다       | 남서~서 0.5~1.0 | 남서~서 0.5~1.0 |
| 남부 앞바다       | 북서~북 0.5     | 북서~북 0.5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북~북동 0.5~1.0 | 북서~북 0.5~1.0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북~북동 0.5~1.0 | 북서~북 0.5~1.5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05:50 | 00:12 |
|    | 18:09 | 12:41 |
| 여수 | 간조    | 만조    |
|    | 01:24 | 07:38 |
|    | 13:35 | 19:56 |

◇주간 날씨

| 3(금) | 4(토) | 5(일) | 6(월) | 7(화) | 8(수)  | 9(목) |
|------|------|------|------|------|-------|------|
|      |      |      |      |      |       |      |
| 7/16 | 6/14 | 3/17 | 4/18 | 8/21 | 10/17 | 4/17 |

◇생활지수

|  |    |
|--|----|
|  | 관심 |
|  | 보통 |
|  | 보통 |

## 농한기 농촌 민생침해범죄 특별 단속

전남경찰, 빈집 절도·농한기 도박 등 순찰 강화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농한기 빈집 침입절도·사행성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특별 형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은 수확철이 마무리되면서 농촌 마을별 단제여행 등 여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노린 빈집 대상 금품절도, 수확물 절도 등이 증가하고, 농촌 고질병 중 하나인 농한기 도박범죄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남농촌에서 농한기 절도는 1041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빈집 침입절도는 149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빈집털이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취약지역 기동순찰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장터 등에서 열리는 윷놀이 등 도박개장행위와 토착 폭력배가 주도하는 도박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제보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

## ‘낙태죄 합헌’ 뒤집힐까

폐지 청원 20만명… 靑 곧 입장 발표·헌재 재심리기로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도로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에 대해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교사노조’ 추진… 진보교육계 복수노조시대 열리나

전교조 탈퇴 간부 주도… “교육 개혁” 현직 100여명 가입 전망

광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별개의 광주교사노조 결성이 추진돼 진보 교육계에 복수노조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박삼진(50) 광주 정광고 교사는 1일 “전교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 중”이라며 “새 단체는 전교조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 가칭 ‘광주교사노조’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해 올해 안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는 현직 교사 100명 안팎이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사회적관계망(SNS)에 올린 글에서 전교조 탈퇴서 제출 사실과 함께

지난해 말 출범한 서울교사노조를 모델로 삼아 단체를 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광주교사노조를 만들기로 한 것은 정치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광주교사노조도 교육청과 교섭을 바탕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교조는 정책·의사·집행 결정 방식이 중앙집중적이다. 이는 과거 중앙집권 체제에선 사안 발생 때 교육부장관과 교섭하면 됐다”면서도 “헌재는 지방분권시대로 교육감과 직접 교섭을 통해 완결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장관과 교섭이 필요할 때 서울교사노조와 노조 결성 추진 중인 전국중등교사노조와 연맹체를 만들

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 시대에 광주교사노조와 같은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계에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교조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 예로 광주나 대전이나 교육감 성향이 각기 다른데, 전교조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면 똑같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시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교조는 조직력이 매우 안정적이다. 그 조직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하겠느냐”면서 “광주교사노조는 노동과 교육 중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 중등교사 임용시험 10.11 대 1 ‘전국 최고’

광주시교육청은 1일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에서 광주 평균 경쟁률이 10.11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8.19대 1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이 이날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과목별로는 일반 모집 기준으로 국어·영어·수학의 경쟁률 강세가 이번에도 두드러졌다.  
각 시·도 과목별 최고 경쟁률은 ▲광주 국어(52대 1·2명 선발 102명 지원), 전남 국어(22.45대 1), 제주 수학(21.4대 1), 울산 국어(30.5대 1), 세종 영어(23대 1), 대전 영어(47대 1), 경기 영어(21.86대 1), 대구 국어(44.6대 1), 경북 국어(35대 1), 강원 국어(28.08대 1), 인천 국어(24.5대 1), 충북 영어(27.9대 1), 전북 국어(26.6대 1) 등 국·영·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종행기자 golee@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기림시다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이제 우리 남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해 봅시다.

목포교육지원청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신안교육지원청

목포가톨릭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한국학원 목포시총연합회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

목포과학대학교